

# NS푸드페스타 손님맛이 '분주'

### 15일 제4일반산업단지 하림 퍼스트키친서... 요리 경연·요리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K-푸드 축제 NS 푸드 페스타(NS Food Festa 2023 in Iksan)가 손님에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익산시와 하림그룹 유통 전문기업 NS홈쇼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고의 맛을 함께 보고 먹고 즐기는 식품 축제'라는 주제로 오는 15~16일 한일음식 엑스포 4차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100팀이 상금 1억원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대규모 요리 경연 대회와, 최고의 가루쌀과면 요리시를 뽑는 '대박 쌀 맛대결 경연전' 등 저마다의 손맛을 뽐낼 무대가 펼쳐진다. 다문화·다자녀 가정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체험 교실, 식품 업계 종사자와 농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도 준비했다.

'하림과 함께하는 미식부어'는 행사 전인 오는 11일부터 진행된다. 사전 신청자를 상대로 하림 식품공장 무료 견학을 실시한 뒤 하림 생산 제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식품홍보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생산 제품 하림그룹 브랜드 제품을 각각 특화한 홍보가 이뤄진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우선 교통의 요지인 익산의 장점을 살려 서울~익산 관광열차 운행과 익산 서동 축제를 연계한 문화 부어를 실시. 관광 연계형 축제를 추진한다. 이외장에서는 익산시 전통 대물림 맛집과 하림 브랜드 제품을 맛보는 시식 부스, NS미리추석마켓, 익산 청년 창업 푸드 마켓 등이 참가자의 눈과 코, 입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과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 위한 구인·구직을 위한 디어로움 취업박람회와 산·학·관 협력으로 실시, 현장에서 기업체 면접과 컨설팅, 취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청춘 버스킹과 버블쇼, 더미식게입존, NS플레이존, 푸진한 경품 등 즐길거리가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린다. 양경진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NS 푸드 페스타는 익산시가 식품 산업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디어플"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 추진

### 2029년 지정 목표... 중간보고회 열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 논의

익산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물억새 군락지인 '용안생태습지'를 지역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익산시에 따르면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는 물억새 군락지이자 삶과 수달, 원앙, 가마우지 등 다양한 생물을 품은 보금자리다. 천혜의 자연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뽑히기도 했다.

익산시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용안생태습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68ha(축구장 170개 규모) 크기의 넓은 하천구역 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주제별로 차별화된 체류형 프로그램을 접목해 새로운 관광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원'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원을 활용한 여가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추후 '국가정원' 지정의 초석이 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5월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현용 익산시장과 지문위원, 용역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월 26일 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 3달여 만에 열린 이번 중간보고회는 용안생태습지를 지방정원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도 등록하는 대상지의 준비 절차다. 용안생태습지의 뛰어난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지방(국가)정원은 익산 생태관광사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는 우선 2024~2026년 단계적으로 정원과 경관·체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세웠다. 이후 3년간 정원박람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2029년에는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서해의 끝섬 어청도 홍보 위한 팸투어 추진

### SNS 인플루언서·여행기자 대상... 어청도 팸투어 지원

대상... 어청도 팸투어 지원

군산시가 서해의 끝섬이자 늘 푸른 섬으로 알려진 어청도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청도는 물이 거울과 같이 맑다는 뜻의 지명과 같이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섬으로, 랜드마크인 1912년에 세워진 어청도 등대를 비롯해 봉수대와 치동묘 등 문화재와 화려한 철새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탐조 여행지이기도 하다.

등산로에 올라 바라본 어청도의 모습은 한반도의 지형과 닮아 있기도 하며, 해안 데크길을 따라 푸른 서해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이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어청도까지 직항으로 운행되는 어청카페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건조된 최신형 여객선으로 1층 여객실은 의자와 소형 카페로, 2층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과 갑판 뱃머리에 포토존 조성 등으로 바다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섬 지역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어청도 팸투어 지원사업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 및 여행기자들을 대상으로 어청도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여행 후기의 온라인 및 SNS 게시를 통해 어청도의 자연풍광과 구석구석 숨은 명소들과 민

박 정보 등의 온라인 노출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자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이상, 블로그 나를 추가한 이웃 500명 이상, 유튜브 구독자 500명 이상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또는 여행작가, 여행기자로 어청도 여행을 홍보할 수 있는 자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어청도 여행계획을 첨부하여 팸투어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지원 자격 등을 검토 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 후 통보한다. 대상자는 여행을 다녀온 후 본인 계정에 여행 후기를 게시하고 여행지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지원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여행경비를 지원하며, 여행비 지원은 최대 2박3일까지 가능하고 여행후기 게시물은 최대 3년간 공개해야 한다. 팸투어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문화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아파트 현장 누수... 익산시, 전문기관 점검 추진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천장 누수'와 관련, 익산시가 외부 안전 점검 기관에 긴급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달 29일 시공 기술사와 동행해 신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천장 균열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공사에 원인 진단을 위한 긴급 구조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

부 안전 전문 기관에 추가적인 구조 안전 점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 점검 과정에서 구조나 품질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2년 뒤 입주 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현재 공정을 30%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장은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바다에 물이 고였고 이 빗물이 아래층 천장에 생긴 균열을 통해 새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 성지순례 '다이로운 익산여행'... 인기 고공행진

익산성지순례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예약을 고공행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월 시에 따르면 4대 종교·문화를 체험하는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 8월 안에 11월 마지막 일정까지 전회차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올 하반기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이달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지난달 7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

템을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3주 만에 완판상태를 기록했다.

하반기 첫 회차인 9월 여행이 시작되며 입소문을 타 대기 신청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여행도 전라북도 지역 이외의 신청자가 많았다. 가족 및 지인 뿐만 아니라 최근 혼자 여행하는 혼여족과 30대 젊은 층 비율이 증가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힐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제11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시가 오는 13일까지 2023 제11회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116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근무수칙 교육을 받은 후 구시청광장 등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축제장 환경정비, 프로그램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며, 6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간주도형 축제인 군산시간여행에는 올해 주제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미(味)를 찾아서 (근대의 맛)'에 맞게 '근대 먹방 300', '커피야 놀자', '빵야빵야 프로그램과 스트리트 마당 무대, '반아라! 미션 공중전화' 등 다양한 거리형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다이로움 받차' 취약 계층 무료 식사 제공

익산시가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 '다이로움 받차'를 다시 운영한다.

'다이로움 받차'는 6월 한달 아시달 공영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결실유려가 있는 저소득 주민 300명에게 당일 조리한 따뜻한 밥과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받차는 휴서기인 지난 8월 한달간 정미 및 휴지를 마치고 다시 재개됐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행복나눔마켓(구 경찰서)에서 매회 고정으로 운영되며, 매월 첫째 주의 경우에는 나눔 받차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정해서 이동 받차를 운영한다.

다이로움 받차는 도시락 제공 외에도 복지 정보와 건강 체크까지 지원해 취약 계층의 찾아 가는 종합 복지 상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